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1호

6-7



6P/ 연중특별기획(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12P/ 기획-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함께 또 따로, 장년부와 청년부의
인도네시아 선교**

34P/ 소그룹 탐방(3)

핑!퐁! 탁구공에 실린 활력 에너지, “연동탁구교실”

62P/인터뷰

“나의 통증은 곧 나의 진실”

박정숙2 집사

설만한 물가

나는 여름이 좋다
옷 벗어 마음껏 살 드러내는,
거리에 소음이 번지는 것이 좋고
제멋대로 자라대는 식물들,
깊어진 강물이 우정우경 소리 내어 흐르는 것과
한밤중 계곡의 무명에 신이 엮지른 별빛들 쏟아져 내려
화폭처럼 수놓은 문장 보기 좋아라
천둥 번개 치는 날 하늘과 땅이 만나 한통속이 되고
몸도 마음도 솔직해져 얼마간의 관음이 허용되는
여름엔 절제를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를 마구 들키고 싶고 내 안쪽 고이 숨겨 온 비밀
몰래 누설하고 싶어라
나는 여름이 좋다

나는 시끄러운 여름이 좋다
여름은 소음의 어머니
우후죽순 태어나는 소음의 천국
소음은 사물들의 모국어
백가쟁명 하는 소음의 각축장
하늘의 플러그가 땅에 꽂히면
지상은 다산의 불꽃이 번쩍인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CONTENTS

2025년 6- 7월호

04 이달의 말씀 **기후위기 시대에 연못골을 지키는 연동교회** 김주용 위임목사

06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12 기획-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함께 또 따로, 장년부와 청년부의 인도네시아 선교**

18 안수집사, 권사 선거와 피택자 소감

연못골 광장

24 1018예수사랑 **중등부 여행** 유하준 성도(중등부 1학년)

25 2030새벽이슬 **3년의 마침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황보예원 성도(Hi청년부)

26 4050광장 **나는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진상협 집사(명일하남구역)

28 살며생각하며 **나와 연동교회** 박기철 공로안수집사(백주년구역)

29 기고시 **붉은 벽돌, 백합의 찬양** 김철경 장로(새문안교회)

청년광장

30 Hi청년부 **무더위도 비껴가는 운동과 기도, 선교의 하이청년들 열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

32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4) **상쾌한 허브의 대명사, '민트(박하)'** 김환 목사

34 소그룹 탐방(3) **핑!퐁! 탁구공에 실린 활력 에너지, "연동탁구교실"**

36 그때 우리 교회는(3) **신앙의 대잇기, 여름성경학교의 과거와 현재**

38 연동 북하우스(20) **슬로우 영성 / 24시간 나의 예수와**

39 칭찬합니다!(15)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선교

4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스위스 교회에서 심은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다** 김명환, 권선중 선교사

42 제1회 다문화의 날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 44 청소년주일학교
- 52 연동교회 어와나, 서울·경기지역 어와나 올림픽 최초 우승!
- 53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
- 54 창단 21주년을 맞는 연동 주니어양상블
- 55 2025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 / 7, 8월 행사안내

연못골 사람들

- 56 왓두유뿌리빙(3) “전승룡 집사와 함께하면 모두 다 전승”
- 58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8) 특수교사 여동훈
- 60 새신자 어게인(21) “청년부 독서모임을 통해서 연동교회에 정착했어요” 이충호 성도(HI청년부)
- 62 인터뷰 “나의 통증은 곧 나의 진실” 장벽에 맞서 고통을 시로 승화시킨 박정숙2 집사
- 63 지체들
- 76 성례주일 세례식 / 교회 첫 출석 아기 / 새가족 소개
- 77 연동복지재단
- 78 신탁 현황, 목양위원회
- 79 연동컬러링

제목: 박하(mint)

크기: 230×300mm

재료: 색연필

제작일: 2025년 6월 29일

그림 내용: 박하는 그 특유의 상쾌한 향과 청량감, 다양한 약리 효능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줄기 위쪽에 하얗거나 연한 자줏빛의 둥근 꽃이 총총히 달립니다. 성경을 보면 십일조로도 드려지던 식물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이번 호 32P에서)/편집자주

작가: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기후위기 시대에 연못골을 지키는 연동교회

한국의 한 기상학자는 과거 여름철마다 맞이했던 한국의 장마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달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온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으며, 작년 미국과 호주에서 난 산불은 몇 달 동안 꺼지지 않아 인공위성에서도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올해 7월 초, 미국 텍사스 중부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과달루페강'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원래 텍사스 중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 때에는 3시간 만에 3개월 치 강수량인 250mm가 쏟아 부어졌고, 그 지역의 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1m 10cm나 급상승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단호하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LA타임즈의 기상학자인 조나단 포터는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구학자(Geologist)라고 불리길 원했던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문명의 피해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기사이면서 동시에 매 계절 다양한 기후 변화로 경험되는 전 지구적 고통과 신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는 이제 단순히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위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는 누군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양 극지방에 있는 동토층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고대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발발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는 최악에서부터 시작한 반생



김주용 위임목사

태적 체인 리액션의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류 문명의 확장으로 숲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숲이 있는 산과 농경지를 잠식해 가고 있고, 많은 나라의 극단적인 도시화 현상은 푸른 땅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매우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가뭄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은 격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식량 공급의 위기는 한 해 약 4,5천 명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내 몸과 같이 지키고 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2023년 연동교회는 사회봉사부 산하에 환경보전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가 환경보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제직부서 팀을 만드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 활동도 하기에 부족한데 환경보존을 위한 제직부서 팀을 만드는 것은 사치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변명과 비난에 발목을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곧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가난한 자의 고통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신음은 같은 아픔이다”(The cry of the poor and the cry of the Earth are one and the same cry)라고 말했습니다.

연동교회 131년의 역사는 연못골을 131년을 지킨 것뿐 아니라, 연못골 주변의 나무와 냇가, 땅과 공기, 그리고 이곳에 사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지켜 온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리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연동교회의 부르심은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창 1:31) 그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연중특별기획〉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 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5. 정신건강, 싱글 사역
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연중특별기획팀 : 박운신, 이경아,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20대 청년세대(스피리추얼 Z세대, Spiritual Gen Z)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을 지칭하며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합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텍스트보다 영상이, 대면 관계보다 비대면이 익숙하고 편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과 체험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5.9%, 전세계 소비자의 40%를 구성하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세대 구분〉

세대분리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Y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50~1964년	1965~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
인구비중	28.9%	24.5%	21%	15.9%
미디어 이용	아날로그 중심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전후 세대, 이념적	물질주의, 경쟁사회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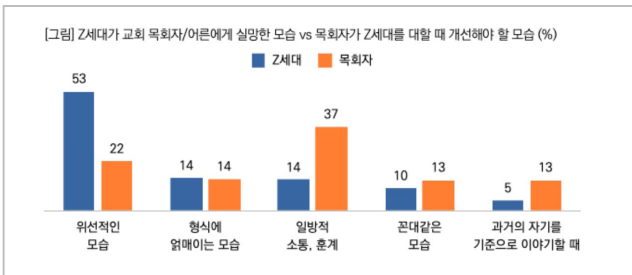
통계청 맥킨지 코리아(세대 구분의 기준은 국가별, 문헌별 차이를 보임)

크리스천 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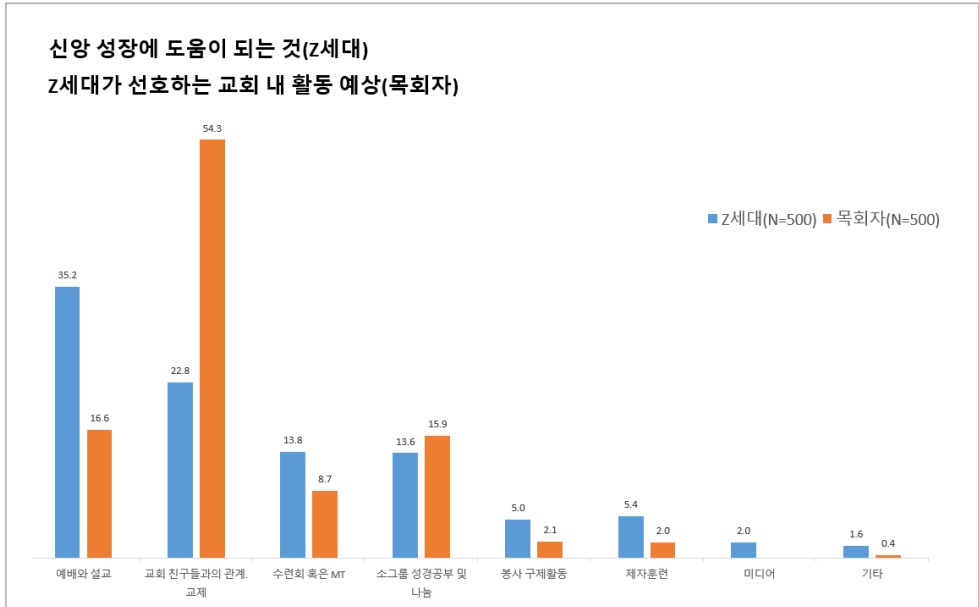
크리스천 Z세대는 일반적인 Z세대와 비슷하게 디지털에 익숙하고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지만, 종교적 신념을 중시해 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성경 공부, 청년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온라인에서도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합니다. 신앙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Z세대는 ‘행복한 가정’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는 마음의 평안, 구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컸으며 ‘부모님의 영향’도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동일한 문항에 대한 Z세대와 목회자의 인식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Z세대의 68.6%가 교회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어떤 모습에 가장 실망했는지에 대한 답으로 ‘위선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뒤로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 ‘일방적 소통, 훈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목회자들은 Z세대를 대하는 장년들과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할 모습에 대해 ‘일방적 소통, 훈계’를 1순위로 지적하였고 ‘위선적인 모습’,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 장년들과 Z세대 간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Z세대는 장년들의 일방적, 경직된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에서 더욱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활동 가운데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답으로 Z세대는 ‘예배와 설교’를 1순위로 답하였고, 친구들과의 관계, 수련회, 소그룹 성경공부 및 나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목회자는 1순위로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를 답하였습니다. Z세대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은 그들의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경청과 공감, SNS, 온라인 콘텐츠 등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직적 지도보다는 수평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한 멘토링, 형식보다는 투명성과 진정성, 획일화된 신앙 기준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한 다양성과 포용성 등을 통해 Z세대가 교회 공동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연동 교회 청년부(Z세대와 모든 청년들) 트렌드 2025>

청년부 담당 박주안 목사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연동교회의 청년부 참석 인원은 평균적으로 130명 정도로 남녀 비율은 1.2:1 정도이며 이중 8%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위 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청년들과 다른 세대들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하이청년 공동체는 셀 구성 자체를 연령대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를 섞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에서 잘 융화되어 서로가 세대 차이를 느끼기 보다는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나이가 있는 세대와는 차이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 문화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늘 있습니다.

청년부 활동은 크게 예배, 제자 양육, 나눔, 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자들에 한해 매주 목요일, 토요일마다 제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2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진행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1번 전체 리더모임을 통하여 기독교 관련 내용들을 강의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사활동(안동시)을 예정 중입니다.

Z세대 신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가 가장 변화해야 할 부분은 ‘열린 신앙 문화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Z세대를 더욱 포용, 수용하기 위해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삶은 현실이라는 큰 힘의 논리 앞에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많이 각박하고 녹록치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직장인 영역들을 알게 될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과 상대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령교인 사역(시니어 미니스트리 Senior Ministry)

인구 고령화(고령, 초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14%, 20% 이상일 때 각각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와 도전

고령 성도의 종교 활동 참여는 활발하나, 젊은 세대의 이탈로 교회는 지속 가능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의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새로운 노년’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의하면 65~79세의 시니어들 중 40% 이상의 시니어 교인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했고 경제활동 가능 연령은 평균 74.6세이며,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과 경험으로 얻어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향상됩니다. 시니어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지지하고, 사역 참여의 기회를 넓혀줄 때, 교회는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고령친화교회(Age-Friendly Churches) 즉, 시니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령친화교회를 위한 5가지 핵심 조건>

시니어의 필요를 잘 살피는 교회	시니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활동적 노화 플랫폼이 되는 교회	시니어가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의사결정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연령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	다양한 세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제
시니어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교회	교회 주도가 아닌 시니어 교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
작은 자를 포용하는 교회	치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시니어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용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교회의 고령친화성은 초고령사회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적 사역입니다.

둘째, 교회의 고령친화성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핵심 토양입니다.

셋째, 노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앙코르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시니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다시 세우고, 격려와 축복 속에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동교회 트렌드 2025> 연동교회의 고령친화성

2025년 현재 연동교회는 등록 교인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약 25%인 초고령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의 시니어 사역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계대운 목사와의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연동교회의 시니어 사역은 크게 **말씀, 기도, 친교, 찬양, 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시니어만을 위한 사역은 아니지만 이 5가지 부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시니어 교인들입니다.

말씀은 데바레카 성경공부와 같이 전교인이 참여하는 모임부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그룹(라비린스)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일예배팀(1~3부 예배팀, 청년부 예배팀, 중국어예배팀), 요일팀(월~토요일팀), 자리팀(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이 대표적이며 50대~80대까지 주일, 요일팀은 4~8명, 자리팀은 100명, 목요기도회는 4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교는 하키편, 소리터, 탁구교실 등 다양한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여전도회 1부 찬양대와 같이 찬양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다수의 교인들을 위한 주방 봉사부터 쌍쌍 구역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애와나’ 등 필요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활동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곳곳에서 시니어 교인들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니어들이 참여하기 좋은 소그룹과 봉사처 한 군데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라비린스>

모임 성격	(Labyrinth 라비린스:미궁)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작 및 인원 구성	2024년 1월 20일(토)부터 9명으로 시작하여 올 초 4명이 보강되어 현재 13명이 모이고 있음. 모두 남성으로 40대 2명, 50대 2명, 60대 7명 70대 2명
활동	찬양, 기도, 지난 한 달간의 삶 나눔, 토론(선정된 신앙서적을 읽어 온 후,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 광고, 기도제목 나누기, 중보기도
모임 시간 및 장소	매월 둘째 주일 13시 10분 가나의 집 502호
기도 제목	*팀원 간에 진솔한 나눔을 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여 진심어린 중보기도를 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내에 첫 남성영성 소그룹인 라비린스가 잘 정착하여, 더 많은 셀로 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입문의	장동철 피택장로(010-2029-8959)

<애와나>

돌봄 대상	만3세~만5세 유아
목적	어린이부서의 ‘여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 나이가 안 되어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유아들을 돌봄으로 부모들이 쌍쌍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 및 장소	주일 오후 1:20~2:40, 가나의집 2층(유아부실 맞은편 방)
운영방식	은퇴권사와 집사, 시무권사들이 2인1조로조를 편성하여 돌봄. 놀잇감은 교사들이 제공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봄이 주 활동이다. 유아들에게 약간의 간식이 제공된다.
봉사자	총 14명. 은퇴권사&집사 3명, 시무권사 10명, 여장로 1명
현 상황 및 앞으로 계획	상반기 2. 23~6.8까지 15주간 운영 후 현재 종료. 하반기는 8.31~12.7까지 매주일 15주 동안 진행될 예정



함께 또 따로, 장년부와 청년부의 인도네시아 선교



▶선교 장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

▶선교 날짜: 장년부- 6월 30일(월)~7월 6일(주일)

청년부- 6월 30일(월)~7월 10일(목)

▶담당교역자: 김한 목사, 박주안 목사, 조창우 전도사

▶참가자: 총 57인(가나다 순, 직분 생략)

장년부: 김수진 김영애 김예주 김한 손옥분 양윤정 윤종훈 윤택식 윤희숙 이대진 이미열 임인수 임정희 장영순 정영희
최영남 최은복 최은주(총 18인)

청년부: 구자현 김건우 김민준 김보성 김승규 김영진 김예나 김예은 김지원 김찬미 김한결 박기현 박빛나 박서진 박승호
박예송 박예찬 박주안 박하영 박혜은 서유니 서호석 성마루별 성유정 신현승 윤현중 이경민 이주영 이희원
전관우 전종민 정재업 정지훈 조창우 최승렬 한지우 한지는 황보예원 황보재윤(총 39인)

▶임원: 장년부- 정영희 권사(비전선교 팀장),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청년부- 김영진 팀장, 윤현중 총무, 성유정 부총무, 박기현 회계, 김한결 서기

/ 기획, 진행: 남다른 기자, 박현미 편집장

▶ 선교 일정

날짜	장년부	청년부
6월 30일(월)	자카르타 도착, 반자르마신으로 이동	
7월 1일(화)	ANY3 전도훈련, 사랑의 공동체 후방 지원	ANY3 전도훈련 및 시연발표
2일(수)	빈자루마루에서 록사도로 이동, 현지 가정 심방	반자루마루에서 록사도로 이동, 복음전도(현지 가정 민박)
3일(목)	현지 가정 심방, 초청집회 준비, 저녁식사 250인분 준비	ANY3 전도, 초청집회, 마을전도(현지 가정 민박)
4일(금)	사랑의 공동체 복귀, 반자르마신에서 자카르타로 이동	ANY3 전도(현지 가정 민박)
5일(토)	호텔 체크 아웃, 기타 활동	조별 가정방문 및 주일예배 초청(현지 가정 민박)
6일(일)	오전 8:30 인천국제공항 도착, 교회 복귀	주일예배, 사랑의 공동체로 이동 및 복귀
7일(월)		사랑의 공동체 환경정리, 초청집회
8일(화)		어린이초청예배, 자카르타로 이동
9일(수)		체크아웃 및 공항 이동
10일(목)		인천국제공항 도착

▶ 청년부 선교공헌팀

팀 이름	팀장	팀원
위십+케이팝	김찬미, 박기현	김하경, 박예송, 김예나, 한지우, 전종민, 이주영, 최승렬, 이경민
부채춤	성유경	서유니, 한지은, 박혜은, 김예은
무언극	윤현중, 구자현	김민준, 전관우, 김보성, 김지원, 김한결, 박주안, 서호성, 황보재윤, 정재엽, 황보예원, 이희원
수화	조창우, 박승호	김건우, 박서진, 박하영, 성마루별, 신연승, 김승규, 박예찬, 정지훈
특송	박주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참



장년부, 세대를 넘어 함께한 단기선교

청년부와 함께 수개월 동안의 훈련과 선교세미나, 여러 준비를 마치고 지난 6월 30일(월)부터 약 일주일간 김한 목사를 비롯해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 이하 세선) 위원들을 포함한 18명의 장년들은 인도네시아에 칼리만탄 선교지 '사랑의 공동체'(김태환, 주애니 선교사)를 방문하고 단기선교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 속한 칼리만탄, 브루나이 왕국, 말레이시아의 일부를 포함한 섬 전체는 우리에게 보르네오 섬으로 알려져 있다.



완공된 사랑의 공동체 건물



사랑의 공동체에서 식사 준비



초청 집회 이후 저녁식사를 위해 250인분 준비

'사랑의 공동체'는 연동교회에서 여러 해 지원을 한 선교지로, 그 배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선 위원장이었던 고 김중식 장로께서 추진하신 '원 포인트 프로젝트'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선교지를 집중 후원하자는 취지로 사업 공모를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사랑의 공동체' 사업은 보육원, 유치원, 예배 처소를 하나로 한 다용도 건축사업으로 2회 연속 절대 다수의 동의로 선정될 만큼 내용이 충실한 사업이었다. 여러 해에 걸친 공사가 금년 초에 마무리되어 완공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연동교회 교인들을 대표하여 세선과 청장년이 같이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청장년과 통역을 도와줄 현지 동역자들이 모여 선교훈련을 진행하였고, 장년부는 현지에서의 식사에 특별 메뉴를 준비하였다.



룩사도 첫 날, 심방요청을 받고 가정 방문



룩사도 지역 현지 가정 방문

이후 칼리만탄 내륙 지역인 룩사도 지역으로 이동해 현지 가정방문과 마을 초청잔치를 진행하였다. 특히 룩사도 지역의 초청집회를 위하여 250명 분의 특별 요리를 준비하여 집회 후 참가자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이 날은 폭우에 더하여 전기와 통신이 하루 종일 끊어지는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집회의 열기가 대단하였고 집회장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장년부의 사역은 과거의 이미용 선교, 의료 선교가 코로나 이후 단절된 상황에서 대외 선교활동을 재경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장년이 같이 참여함으로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열정을 경험 있는 선배들이 후원하는 모습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었다. 앞으로의 선교에도 전 교인이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세계선교를 위한 여러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 윤중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청년부, 9박 10일의 은혜 여정

올해 여름, 우리는 57명의 선교 팀원(청년부 39명, 장년부 18명)과 함께 9박 10일 동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장년부의 연륜과 청년부의 열정이 만난 선교팀은 마치 십자가 군병과도 같았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준비한 시간들은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칼리만탄에 있는 록사도 마을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록사도', '하양인', '따뽀' 이라는 세 곳의 마을을 축으로 복음 전도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변 마을을 방문하여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직접 기도를 해주었고, 집회 사역, 어린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복음은 그 벽을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매번 집회는 선교팀과 현지인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는 김환 목사, 박주안 목사가 담당하였고, 특별 순서로는 무연극과 부채춤, 수화 찬양, 그리고 K-pop 댄스를 통해 문화를 접목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57명이 함께 부른 전제 특송('나의 모습 나의 소유')는 이번 선교의 주제 찬양이었으며, 예배당을 울리며 현지 성도들과의 깊은 연합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함께 동역해준 선교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까이 경험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려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님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주안 목사



Any3 연습



여는예배

<청년부 사역을 담당한 12개 조의 소감>

♥ 1조: 선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이론을 넘어 삶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ی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박주안 목사)

♥ 2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선교였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선교였습니다. (김찬미 자매)

♥ 3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또 한번 놀라게 된 선교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힘을 빼게 하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도 하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경험한 선교였습니다. (서유니 자매)

♥ 4조: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선교를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마침표 찍기를 소망합니다. (윤현중 형제)

♥ 5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선교였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조차 다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그 나라의 현장을 보고 오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유정 자매)

♥ 6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선교팀 그리고 중보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erima kasih! (박기현 형제)

♥ 7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 지 매 순간 몸소 느낄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영진 자매)



룩사도 도착



록사도 집회



Any3 복음 마을 전도



♥ 8조: 이번 선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낀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제 안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셨고 지쳐 있던 마음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1분 1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복잡했던 모든 질문 앞에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셨습니다. (박예송 자매)



♥ 9조: 이번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다. 선교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선교. 나는 이번 현장과 사건, 그리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얻으며 스스로가 연단 받아 나아가고 있음을 되돌아본 시간이었다. (조창우 전도사)



Any3, 마을 전도 피드백



Any3, 마을 전도 피드백

떠오르는 선교였습니다. 평화로운 환경에 놓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께 배운 평강을 주장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 안심되었고, 주가 지키시고 함께하심에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동행의 여정에 순종할 수 있음 또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끌어가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 잔잔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자현 자매)



어린이초청예배

♥ 11조: 선교 준비부터 선교 모든 순간이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평생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 감사합니다. (김건우 형제)

♥ 12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끊이질 않았고, 나의 욕심과 앞섬이 깨어져 순종을 배운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세워 주신 훌륭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선교였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박예찬 형제)

안수집사, 권사 선거



▶ **일정:** 5월18일(주일) 1차 선거

5월 25일(주일) 2차 선거

▶ **투표시간:** 오전 7시30분~오후 3시

▶ **투표장소:** 교회 마당

▶ **선출인원:**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

▶ **안수집사 후보**(당회 공천순): 박흥열 이규진 김영복 김인교 유기정 김현정 김태곤 김동열 김운태 노환규 최명식 정영석 이승원 조형욱 남득현 육경민 김종원 김태정 이학주 고희석 김희석 전희재 윤복기 김선일 장재필

▶ **권사 후보**(당회 공천순): 정경아 배광미 박재연 이항이 김이선 김수진 이현승 김희경 박영란 최문경 양미자 우일애 김지영1 서경희 신호덕 김현정2 우윤지 이선아 박혜란 이대진 길정순 김세라 오수희 한상정 장의숙 김은주 강윤희 박윤신 공혜경 양진실 이은영2 최은숙1 한선순 김은실 김수연2 김경아 조희정 정선아 박성윤 윤은숙 심태연 박성미 김은희1 김미정2 이정순

▶ **안수집사 피택자**(10인, 득표순)

이규진 박흥열 유기정 김영복 김인교 김태곤 김동열 김운태 김현정 노환규

▶ **권사 피택자**(18인, 득표순)

김이선 정경아 배광미 김수진 이현승 우일애 박영란 신호덕 이항이 김희경 최문경 박재연 김현정2

김지영1 박혜란 양미자 우윤지 이대진

/ 진행: 송재호, 이지원 기자, 박현미 편집장

<피택안수집사 소감>



이규진 피택안수집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안수집사로 피택해주신 하나님과 연동의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받은 은혜에 축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하나님에 물으실 때 숨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박흥열 피택안수집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택함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늘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정 피택안수집사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신 뜻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처음 받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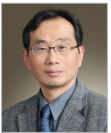
김영복 피택안수집사

피택자 수련과정을 통하여 저 자신의 침체된 믿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보다는 온전한 행위로 실천하기를 간구합니다. 겸손과 자족함으로 저의 삶 채워나가길 기도합니다.



김인교 피택안수집사

한없이 부족하고 작은 자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며, 늘 겸손히 대하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곤 피택안수집사

부족한 저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 봉사나 사역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찬양대와 주방 봉사를 통해 기쁨으로 섬기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고, 이제는 안수집사라는 귀한 직분까지 맡게 되어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낍니다.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게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열 피택안수집사

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피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연동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피택되면서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부터 앞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시듯이 모세처럼 저 또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윤태 피택안수집사

안수집사로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이나 허락하신 직분이니, 배우는 자세로 소임을 담당하며 섬기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피택안수집사

먼저 부족한 저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홀로 달려갈 때는 외롭고 힘겹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증보하며 함께 나아갈 때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공동체에서 새롭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노환규 피택안수집사

부모님 손을 잡고 연동교회에 출석한 지 꼭 50년 만에 안수집사에 피택되었습니다. 5년 전 별세하신 부친께서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을 동시에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거워진 어깨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택권사 소감>



김이선 피택권사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30여 년 동안 연못골을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제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겸손함과 따스함으로 끝까지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경아 피택권사

연동교회 권사로 피택되고 나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주님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들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 부흥과 목사님들의 사역, 교인들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광미 피택권사

샬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족한 저를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헌신, 바른 섬김으로 권사의 자리에서 경성을 다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 삶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김수진 피택권사

어쩌다보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섬김을 하다보니 이제 일 좀 해야지? 하시던 교회 어르신들의 권유를 가슴에 새깁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아닌 속부터 영글어 알찬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현승 피택권사

피택 축하인사를 받으며 '자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주님을 목상하며...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하시고 자녀로 택하신 것처럼 권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믿으며 교회를 섬기고 피택되도록 투표해주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함으로 기쁘게,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무엇보다 제 심성과 성품과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일애 피택권사

피택 받은 다음 날 새벽 꿈에 아빠를 보았습니다. 많이 허기지고 연약해 있었는데 마침 제게 뭔가를 먹이셔서 잘 먹고 잠에서 깰했습니다. 뭔가 영양 보충을 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로 받겠습니다. 이제 아바 아버지께서 세상 끝 날까지 사랑하는 딸의 영원한 양육자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란 피택권사

할렐루야! 부족함 많은 제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헌신 봉사할 기회를 주신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피택 소식에 격정, 두려움 컸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에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효덕 피택권사

부족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항이 피택권사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권사로 피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피택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섬겨 나가는 데 어려움없도록 건강과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주강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경 피택권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세상 풍파로 흔들 때에도 주님 안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유치부 교사로서 유치부에 국한된 일에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는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문경 피택권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택권사 선출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연 피택권사

눅 16:2~4의 말씀처럼 불의한 청지기로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 과분한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어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미력하나마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2 피택권사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무의식적으로 붙었던 찬양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되게 하소서'가 이제 보니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지지에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지영1 피택권사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택 제안에 “제가 맞나요?” 권사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인지 되돌아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실버아카데미 봉사가 큰 파장을 불러왔고 재촉하듯 빠르게 된 것은 나이가 많은 탓, 어르신들 기대에 용기를 내어 연동교회 권사로서 해야 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박혜란 피택권사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학창시절의 연동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던 훌륭한 교회였고 연동교인이라는 자부심을 주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짧은 임직기간 동안 온 세대가 소통하는 하나 되는 교회되게 힘쓰며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연동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교인 모두가 연동교인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양미자 피택권사

피택 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믿기지 않았고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께 감사와 또 직분에 무게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윤지 피택권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131년의 연동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샬롬!!!



이대진 피택권사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도 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부담감이 함께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상황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등부 여행



유하준 성도
(중등부 1학년)

얼마 전에 춘천으로 교회에서 중등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소중한 토요일까지 반납하면서 춘천으로 가기가 조금 싫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에 갔더니 같은 학년 친구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때 조금 더 힘이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 때는 무조건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웠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 친구와 정말 친하게 지내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큰둥하게 버스에 타서 가려는데 친구가 게임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이었기에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하던 게임을 친구와 같이하니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기분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재밌게 게임을 하던 도중에 닭갈비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는 닭갈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닭갈비를 먹는 순간 정말 지금까지 먹었던 닭갈비와는 달랐어요. 분명 닭 한 마리, 가슴살이나 맛이 없는 부위도 섞여 있을 텐데 모두 다리인 것처럼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지 춘천에 와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닭고기뿐만 아니라 떡과 다른 음식들까지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었습니다.

닭갈비로 맛있게 배를 채운 후 도착한 곳은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타서 자전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레일대로 가야 돼서 더 재미없을 줄 알았죠. 그렇게 레일바이크를 타서 페달을 밟기 시작한 지 몇 초 후, 레일바이크가 빠르게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꽃들과 파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때부터 자전거와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주변 풍경이 질릴 때쯤이면 멋지게 꾸민 터널 속으로 들어가 다시 흥미를 돋우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춘천 여행은 정말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올 수 있게 도와주셨기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믿으며 안 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었던 것이 정말 아쉽고 하루 더 있고 싶었던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3년의 마침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기에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뭐든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의 마음이 이어져 어느새 3년 연속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선교는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과는 다르게 선교 준비 기간 중 수면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의지할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번 단기선교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단련된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등 출발 전날까지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 준비 기간 중 겪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영적 공격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제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장난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기보다 기도로 담대히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선교지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단련시켜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황보예원 성도
(HI청년부)

제게 3년 간의 선교 경험은 우리가 각 마을에서 했던 전도지 이름인 Any3(Anytime, Anyone, Anywhere)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완공되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년마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기쁨과 감사로 3년의 마침표를 잘 찍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 선교마다 크고 작은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매번 작년에 아쉬웠던 것을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아쉬움과 후회는 늘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늘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폭 빠져 있는 찬양의 가사가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 함께 나누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나는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진상협 집사
(명일하남구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인가? 면죄부 장사를 하던 가톨릭의 부정 부패를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때의 '개혁교회'가 과연 맞는가? 오늘날, 반성과 성찰이 빚겨간 개신교보다 오히려 가톨릭이 더욱 개혁적으로 보이는 우리 시대의 오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죽은 나무와도 같은 한국교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내면의 숨겨진 죄에 대해 다른 잣대를 대는 경향이 있다. 생각만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애초에 교회 문턱을 넘여갈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때문에, 또한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죽은 나무'와도 같은 한국교회에 여전히 정성으로 물을 주는 것에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겨우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한국교회 공동체는 예배, 찬양, 교제 등은 활발하지만, 전반적인 교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도들은 묻고 싶어도 어디에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며, 교회는 말하기와 듣기의 공격 공간을 외면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문제의식을 가진 비판적 질문을 할 수 있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내부에서 제시되는 화두나 물음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반쪽짜리 역사에서 진정한 역사로의 전환

사회 각 분야의 조직들이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직적 통제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해방 이후 80년 동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세력화되고 부의 가치에 편승하여, 역사적 진보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구호만 있는 '변화와 통합'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거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대 군부정권과 함께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정권에 협조하며 권력에 부역한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오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습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앙은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사이에서의 특정 선택이 아니라, 공의와 생명의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결코 폭력적 언어와 혐오를 확산하고 '내 편'만을 주장하는 극단으로 갈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길'과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치유나 위로는 없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도발하려고 한 계엄령

내란 사태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한국교회 내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요즈음은 자주 듣지 못하지만 과거의 설교 말씀에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통합 교단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전통 있다”고. 그리고 “제일 많은 신앙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류 교단의 모습을 자처해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한국교회의 ‘흑역사’ 한가운데에 우리 교단이 있고 그 과오 또한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숨어 있다.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의 유산을 기리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서북청년단’의 그늘진 역사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외면하고 있다. 일제감점기의 ‘신사참배’와 80년대 ‘군부정권’에 유착해 기꺼이 나팔수 역할을 해왔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또한 한국교회 역사에 녹아 있음에도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복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역사교육의 유산으로 그 부끄러운 흔적들도 남겨야 한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요체

최근 십여 년간 반복되는 ‘교회 세습’과 ‘성 추문’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사회적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맘몬과 권력의 힘에 의해 관료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 일반 신앙인의 상식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거나 ‘결코 회생하지 않으려는 거래’를 하는 샅꾼의 마음으로 무리에 숨어서는 안된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나도 당신처럼 어떤 힘든 여정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는 ‘자기 신념의 순수성에 빠질수록 맹신에 빠진다’고 말한다. 죽은 교회와도 같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럼에도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는가? 지금 이 곳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와 연동교회



박기철 공로안수집사
(백주년구역)

저는 연동교회를 통하여 내 삶에 너무 많은 것은 얻었으며 지금 빛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 연동교회를 출석, 주일학교를 통하여 김옥주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았고 아마 그때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졸업 후 믿음 생활은 정지되었고 청년의 시기에는 세상과 벗하며 때로는 자신을 자학하며 술과 담배로 위로 받으며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딸, 석찬복 공로권사를 동반자로 맺어 주셨지요. 그리고 박성미 집사와 박성우 집사 남매를 허락해주셔서 교회학교와 아내의 신앙교육이 결실을 맺어 교회 제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날 고통 속에 있었던 내 자신과 시인 신달자가 겪은 삶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시인은 그 고통을 무너진 산에 깔려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었고 내일을 믿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모양으로 삶의 질곡이 다가오지만 긴 고통의 터널 속을 통과하듯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주님께 저에게 주실 제 2의 소명은 무엇인지요, 기도하며 남겨진 시간을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숙고 중입니다.

붉은 벽돌, 백합의 찬양

130년 세월의 숨결을 안고
연동의 붉은 벽돌 예배당 뜨락에
한 송이 백합이 피어난다
이른 기도처럼, 말없이 열린다

햇살은 게일홀 유리창을 타고
은빛 물결 햇살은 스며들고
백합 꽃잎은 숨결 따라
고요히, 차분히 펼쳐진다

바람은 스치되 흔들지 못하고
그 자태는 눈물처럼 고요하다
흰 빛은 말이 없으나
침묵으로, 거룩을 노래한다

붉은 벽돌의 결마다
기도가 스며 있었고
눈물 한 방울, 찬양 한 소절씩
시간의 틈새를 메우며
마침내 향기로 노래하는 꽃 하나

누군가의 무릎
권사의 뜨거운 기도 속삭임
이름 모를 성도의 애절한 외침
이 흠에 스며들어
오늘, 순결로 피어오른다

한 송이 흰 꽃이 선 그 자리에
세월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복음 열정은 투명한 바람 되어
그 결을 지나간다

130년 전, 복음의 씨앗
이제는 새하얀 빛으로 맺혀
130년 역사의 세월을 비추고
말없이, 진리를 증언한다



김철경 장로
(새문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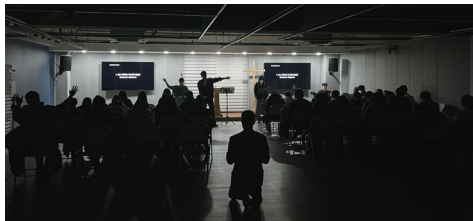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마6:28)



*6월 28일(토) 연동교회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제21회 서울노회장로회
산악회 경기총회를 마친 후, 뜨락에 피어 있는 백합을 보고
이 시를 쓰신 김철경 장로님께서 시와 사진을 '연못골'에 기고해주셨습니다.
(편집자주)

무더위도 비껴가는 운동과 기도, 선교의 하이청년들 열정

| 금요기도회



6월 13일(금), 가나아파트 아가페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렸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도회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어졌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은혜의 밤을 보냈다.

| 풋살 친교



5월 18일(주일), 5월 31일(토), 그리고 6월 6일(금). 세 차례에 걸쳐 풋살 친교모임이 열렸다. 이번 풋살 친교는 교역자와 청년부, 그리고 송학대교회·영락교회 청년부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됐으며 승패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가운데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경험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고 채워지는 풍성한 교제의 자리였다

| 청년부 체육대회



6월 7일(토), 경신고등학교에서 청년부 체육대회가 열렸다. 청년들은 총 네 팀으로 나뉘어 함께 달리고, 뛰고, 웃으며 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줄다리기, 피구, 농구,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엔 시상과 함께 식탁의 교제까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히 연결되고 성장해 나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한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5월 31일(토)과 6월 21일(토), 창신동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릿지 온(溫) 봉사가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쪽 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작은 섬김이 어르신들의 하루에 위로와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 선교팀 중보기도의 밤



6월 26일(목), 다가오는 인도네시아 단기선교(6/30~7/10)를 앞두고 선교팀 중보기도의 밤이 열렸다. 이날 모인 청, 장년들은 한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며 선교팀의 안전과 영적 무장, 그리고 현지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 중보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준비된 간식과 다과를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도 이어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밤이었다.

|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6월 30일(월)부터 7월 10일(목)까지, 청년부는 인도네시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청년들은 복음과 사랑을 들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예배와 찬양, 어린이사역, 거리전도, 가정 방문과 간증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선교가 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한다.

상쾌한 허브의 대명사, ‘민트(박하)’



상쾌한 허브의 대명사인 민트(박하)는 고대 성경 시대부터 향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식물이다. 특유의 청량하고 맑은 향 덕분에 오늘날에도 차와 디저트에 풍미를 더하거나, 입욕제와 방향제,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민트는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허브로, 줄기와 잎을 비비면 특유의 시원한 향이 퍼지며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준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과 유럽, 시베리아, 이란 지역이며, 유대 땅에서도 흔히 재배되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손쉽게 기를 수 있어 고대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자리했던 식물이기도 하다.

성경에서도 민트는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민트(박하)와 회향, 근채까지도 십일조로 드릴 만큼 철저히 율법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마23:23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형식만 남은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들이 박하 같은 작은 식물까지도 예물로 드렸다는



김한 목사

당시의 경건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민트는 흔하고 작지만, 하나님께 드릴 만큼 향기롭고 의미 있는 식물이었다.

예수님은 민트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구별의 마음을 좋게 보셨을 것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삶 전체가 민트처럼 향기롭기를 원하셨다는 데 있다. 겉으로는 예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의 향기를 잃어버린 외식적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도 민트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분명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러진다면,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민트의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민트는 현대 향수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맑음과 시원함, 새로움을 선사한다. 각기 다른 민트 계열 향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상의 감각을 깨우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풀어놓는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향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삶의 태도 또한 조용히 우리 존재를 물들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딤**의 ‘오 드 민테’는 민트의 신선함에 패쵸리, 제라늄, 로즈, 머스크가 어우러지며 우아함이 더해진 향수로, 민트 계열 향기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에마 *** **의 ‘유 오어 썸원 라이크유’도 민트가 주로 느껴지는 향수이다. 신선한 민트와 시트러스의 톡 쏘는 청량감이 느껴지고, 그 후에는 은은한 장미와 그린 노트가 부드럽게 섞이는 향이다.

마지막으로 밀러 * **의 ‘멘타이멘타’도 이름처럼 민트가 중심이 되는 향수이다. 스피어민트와 페퍼민트가 동시에 퍼지며 청량함이 느껴진다. 이 후 바질과 제라늄이 더해지면서 허브향이 느껴지는 향이다.

민트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향기는 분명하다. 민트처럼 우리의 일상도 작고 단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성과 사랑, 믿음의 향기를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

더위에 쉽게 지치는 여름, 상쾌한 민트 향을 맡을 때마다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보자. 그 향기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 안에서 은은히 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한 숨결 같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핑!퐁! 탁구공에 실린 활력 에너지, “연동탁구교실”



정적이 흐르던 일상에 불어온 유쾌한 반전!

연동에 핑퐁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나미집 지하2층 열림홀에 지난 1월 탁구대가 등장하며 단박에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탁구교실 개설과 함께 회원수가 급증해 어느새 회원이 50명 가까이 됩니다(7월15일 기준 48명). 이제는 탁구대 4대와 기계식 연습용 2대마저 적다고 느껴질 정도죠.

라켓을 처음 쥔 초보부터, 품 나는 운동복을 입은 매니아까지!

라켓을 처음 쥐어보는회원부터 멋지게 운동복을 차려입고 등장하는 매니아까지, 20대 청년부터 70대 고령자까지 다양한 회원들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도 대단합니다. 이 다채로움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하모니는 탁구장 전체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죠.

‘탁알못’도 걱정 마세요! 김용기 공로안수집사님의 마법 같은 코칭!

각자의 실력과 눈높이에 맞춰주는 1:1 코칭 덕분에 탁구에 대해 일도 모르는 ‘탁알못’들도 탁구와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며 가며 슬쩍 구경만 해도 푹!푹! 그 경쾌한 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운동 후엔 꿀맛 같은 간식 타임!

한쪽에 마련된 간식 코너는 탁구로 흘린 땀방울을 달콤하게 채워줍니다. 빵, 떡, 초콜릿, 커피, 음료, 컵라면까지!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깔깔 호호 웃다 보면 어느새 ‘금상첨화’ ‘일석이조’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잠깐 인터뷰] 김현철, 문현숙 성도 부부

“연동탁구교실 회원이 되면서 이제 진짜 연동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김현철, 문현숙 성도 부부(수유구역). 놀랍게도 작년 ‘연못골’에서 소개한 새신자 부부(2-3월호 <새신자어게인>)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운동하고 교제하며 비로소 연동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탁구부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감독님까지 계셔서 하나의 스포츠를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십니다.



운동뿐 아니라 교인들간의 즐거운 교제와 선교까지 맡아 점점 부흥하고 있는 건강한 소그룹 ‘연동탁구교실’, 앞으로 연동탁구선교회로 향하는 초석이 되기를 꿈꾸며 점점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는 연동탁구교실, 직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 박현미 편집장



- ▶ 장소: 가나의 집 열림홀(지하2층)
- ▶ 탁구대 개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토요일 오전 8시~12시(그 외 원하는 날과 시간에 지역주민 포함 누구든 사용 가능)
- ▶ 정구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 가입문의: 이수진 장로 010-8783-7617와 연동탁구교실 회원들께

신앙의 대잇기, 여름성경학교의 과거와 현재

한국의 초기 주일학교운동은 한국교회사에서 괄목할만한 교회의 잠재력과 부흥 가능성의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주일학교운동의 시작은 1907년 5월 5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시작된 '소아회'가 그 모체가 됩니다. 연동교회 소아회는 1914년에는 장년교인 수가 7백 명일 때 주일학교 학생 수는 9백21명에 이르렀고, 1918년에 소아회는 유년주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전국교회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주일학교운동은 1921년 11월 1 일에는 YMCA강당에서 열린 제1회 전국주일학교대회에 5천 명 이상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름성경학교(VBS, Vacation Bible School)는 주일학교를 근간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교회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되어온 활동입니다. 여름성경학교의 뿌리는 주일학교 운동에 있으며, 이 운동의 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연동교회 소아회입니다. 연동교회 소아회는 당시 장년교인보다 더 많은 아동을 품으며,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아동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후 폐허와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가 미래세대 신앙교육과 희망의 공간, 지역사회 돌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956년을 전후하여 한국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지도자 양성 규정, 여름성경학교 교본(이전에는 '하기아동성경학교') 등이 정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일	주요 내용 및 활동	활동
1950년대	- 성경지식 중심의 교육 - 찬송/암송/성경퀴즈 - 미술 및 야외활동 제한적 - 교실·마당 중심 모임	- 전쟁과 가난 속 희망 교육 - 성경적 가치와 질서 강조 - 지역 어린이 돌봄 역할 강화
현재	- 스토리텔링·액티비티 중심 프로그램 - 미디어(영상, 만화, IT) 활용 - 소그룹·프로젝트 활동 - 실내외 캠프/봉사 연계 확대	- 통합적 신앙·인성 교육 - 교회·가정·지역사회 연계 - 창의성·공동체성 중요시

■ 1950년대 연동교회 여름성경학교

극심한 사회혼란 속, 아이들에게 성경지식 전수와 근면/정직/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활동은 대체로 찬송, 성경 암송, 율동, 소박한 공예활동, 일상에 필요한 예절·생활교육 등이 어우러졌으며, 간식이나 선물도 단순하고 검소했습니다.

성경학교 교사들이 이웃 아이들을 직접 가정에서 데려오고, 지역의 아동을 품으려는 공동체 의식·돌봄 기능이 강했습니다.





■ 현대 연동교회 여성성경학교

스토리텔링, 역할극, 영상, 음악, 만들기, 퀴즈, 야외체형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키우는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타인 존중, 공동체성, 환경보호 등 현대적 가치도 함께 접목되며, 주제별 소그룹 토론, 봉사 프로젝트, 디지털 교육으로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부모와의 소통, 신앙상담, 심지어 장년층·청년층까지 '세대통합 교육'이 시도되는 점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연동교회 여성성경학교의 앞으로의 비전과 역할

- * **교육적 가치 확장** : 성경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감수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신앙교육에도 깊은 관심과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합니다.
- * **사회적 공헌** : 여성성경학교를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초청, 소외 이웃 섬김, 환경 캠페인 등에도 다음세대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 **다음세대 세움** : 1907년 소아회부터 이어온 연동교회의 어린이 신앙 전수 전통을 이해시키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 * **미래지향 교육** : AI·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소그룹 형성, 글로벌 기독교 문화 체험 등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신앙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 **세대 통합과 교회 비전** : 다양한 세대를 여성성경학교 안에서 연결(멘토링, 가족 프로그램 등), 노년-청년-어린이 모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1907년, 이 땅에 '소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연동교회의 주일학교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교회 아동신앙교육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교육과 돌봄, 신앙의 씨앗을 심은 곳, 그 첫걸음이 바로 연동교회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참된 진리, 변치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성경학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성성경학교는 단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품고 미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이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사명을 짊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온 연동 공동체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모아줄 때, 이 사명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 임재철 기자

슬로우 영성 -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존 마크 코머 지음 / 정성목 옮김 / 두란노 / 2021



존 마크 코머는 오리건 포틀랜드 브리짓타운교회를 설립하고 섬겼던 목회자이며, 『Practicing the Way』, 『거짓들의 진실(Live No Lies)』, 『슬로우 영성(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등을 통해 뉴욕타임스-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Rule of Life(삶의 규칙)'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구체적 길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우 영성』은 '급함(hurry)'이 우리의 사랑·기쁨·평안을 빼앗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코머는 스마트폰, 일정, 디지털 알림으로 뻘뻘한 삶 속에서 정작 내면은 초조하고 공허하다고 진단하며, 다음 네 가지 영성 회복 훈련법을 제안한다.

- 침묵과 고요: 스마트폰 알림을 끈 채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는다.
-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멈춤의 날'로 정하고, 예배·기도·감사·공동체로 채우며 심을 영성 훈련으로 승화한다.
- 단순함: 불필요한 물건과 일정, 디지털 알림을 제거해 '삶의 여백'을 만들고 내면의 평안을 회복한다.
- 의도적 느림 연습: 일부러 긴 줄에 서기, 천천히 운전하기 같은 작은 행동으로 몸과 마음의 속도를 낮춘다.

코머는 이러한 훈련이 단순한 자기 계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be with Jesus)'의 리듬을 회복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24시간 나의 예수와 - "우리, 정말 예수로 살아 보자"

존 마크 코머 지음 / 정성목 옮김 / 두란노 / 2024



코머의 최신작 『24시간 나의 예수와(How to Spend a Day with Jesus)』는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리듬으로 채우는 영성 안내서다. 이 책은 디지털 가이드 형식으로, 깨어 있는 시간뿐 아니라 수면, 식사, 이동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도록 돕는다

- 일몰 기준 하루 시작: 창세기처럼 저녁에서 아침으로 하루를 세움으로써, 자연스러운 영성 리듬을 회복하도록 안내한다.
- 24시간 매 순간 기도 초대: 기상, 식사, 이동, 취침 등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연습을 권한다.
- 수면도 기도다: 단순히 몸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의 쉼'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신성한 시간으로 해석한다.
- 디지털 쉼 제안: 특히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하나님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한다.

두 책은 '영성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슬로우 영성』은 삶의 속도를 회복하도록 초대하고, 『24시간 나의 예수와』는 하루의 모든 리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다. 현대인의 바쁨을 멈추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하기를 권하며 두 도서를 함께 추천한다. / 고현수 기자

인생 90+,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올해 아흔둘,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은 여전히 예배당 문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 들어오십니다. 허리는 꼳꼳하고,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엔 그저 노인의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에는 50년 넘게 이어진 '신실한 약속'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1973년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정은, 고등부 부장에 이어 아동부 부장으로 섬김의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주일이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삶을 통해 '믿음의 일관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배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약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신앙의 초심을 잃기 쉬운 이 시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은 대전공업학교에서 화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한철강회사에서는 묵묵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에서 토목 담당으로 일하시며, 은퇴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책임과 성실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 비결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며 규칙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것이 강조하는 '은퇴 후의 예배적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걱정은 기도로 바꾸고, 감사는 입술로 고백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병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간단한 진리는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고, 명예보다 귀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여백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여백을 감사와 기도로 채우면, 은퇴 이후의 인생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후배 여러분,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결심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삶을 정돈하며, 주어진 나날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김윤환 공로안수집사님의 삶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에는, 은퇴란 없다."**

/ 박동진 기자

스위스 교회에서 심은 작은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다

스위스 개혁신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충분한 교역자도 없고, 교사로 봉사할 사람도 없으며,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교회를 가장 부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에 견줄 수는 없지만, 스위스 개혁신교회에도 '신앙 교육과정(Religionspädagogisches Gesamtkonzept)'이 있습니다.

3세까지 '작은 아들과 함께하는 예배(Fiire mit de Chline)'가 연 2회 있고, 6세까지 '별새(작고 빠르게 섬세한 별새 처럼 신앙의 첫 날개짓하라는 의미에서)' 모임이 달별로 있습니다. 너무 적죠?

초등학생들은 '운티'라는 기독교 수업을 받습니다. 학년별 해당 주제를 운티에서 배우고, 그 주제로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르멘스도르프에는 각각 2학년은 세례 예배, 3학년은 성찬 예배, 4학년은 성경 예배가 있습니다.

7학년부터는 9학년에 있을 '입교(Konfirmation)'를 준비합니다. 입교는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세례와 짝을 이루는 예전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교를 마치면 청소년들은 교회에 참정권을 가지는 회원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중등과정을 마치고 직업 실습을 다니는 나이가 되므로 입교를 '성인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교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설득을 거쳐야 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였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5/26 입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 27명이 100% 등록한 것입니다. 그중 다수가 최근 7~8학년 모임에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7-8학년 간식으로 준비된 한국 라면

이언이의 입교식

200년 전, 스위스 바젤 미션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가 외로움과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헌신된 여성들이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의 반려자가 되기 위해 아프리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우니 자녀가 생기면 바젤 선교부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 선교본부를 현재 Mission21 자리에 신축할 때, 유치원을 함께 지었습니다.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선교사 자녀를 위한 소위 '선교 고아원'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은 선교 활동 외에도 자녀 양육으로 고민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같은 주일학교가 없는 현지에서의 신앙 양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소식지에서도 늘 이언이와 이신이의 신앙 양육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이유입니다.

♥ 기도부탁드립니다.

1. 비르멘스도르프-애쉬 개혁교회 사역 (6월: 2~3학년 수료예배, 25/26년 입교 교육 시작)
2. 임시 대리 목사님과의 원활한 협력 및 새로운 동료 목사님 청빙을 위해
3. 김이언, 김이신 신앙 양육을 위해

취리히에서 김명환 권선중 이언 이신 드림



성찬식에 대해 수업을 듣는 3학년 학생들



성경에 대해 수업을 듣는 4학년 학생들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 된 6월 25일(주일) 제1회 “다문화의 날”은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의 주최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성도들과 다문화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중국과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정성껏 준비한 전통음식, 전통차 등이 한국 성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중국, 필리핀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생명 주께 있네” 찬양 워십 댄스는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이끌었고, 많은 분이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춤추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축제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생긴 우정과 이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라디아서 5:6)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임을 느낀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다문화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민족과 문화가 함께 모여 그분을 경배하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였다.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순간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WeChat ID : df7135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이번 제1회 “다문화의 날”은 문화의 나눔, 섬김의 실천, 공동체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며 섬겨주신 모든 분,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한국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고, 살아있는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제2회 “다문화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Facebook : Abel Raby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동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각 민족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 진행: 박동진 기자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피택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어요(출12:51)	5월 생일축하(방주안, 정해솔), 영아부에 반하다(어버이주일 행사)
	18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출19:5)	말씀놀이(감사해요 사랑배달놀이)
	2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레 20:26)	임산부 축복기도(권하영 집사, 구현영 사모, 김지영 사모)
6	1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민14:8)	6월 생일축하(고해인), 환경주일 나눔마켓을 위한 물품 기부 6월 말씀송 배우기, 0531(토)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참여
	8	아멘 아멘 성령님(행1:4)	성령강림주일, 말씀놀이, 연동아이 나눔마켓(아나바다)
	15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수24:16)	성경학교 기다림 활동_반짝반짝 찬양파티&사랑나누기, 교사 월례회&기도회
	22	함께 싸우게 하셨어요(삿5:2)	성경학교 기다림 활동_얼음송공을 따스한 사랑으로 녹여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_기도나무&교사 릴레이 기도
	29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삿7:8)	성경학교 기다림 활동_사랑눈꽃 복음팔방수,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기도
7	6	성령님과 함께 Jump! Jump!(행 2:47)	7월 생일축하(이시은), 성찬식, 성경학교 기다림 활동_사랑가득 교회 만들기

/ 박윤신 부감



생일을 축하해요(방주안, 정해솔, 고해인, 이시은)



영아부에 반하다_어버이주일 감사 커피차



연동아이 나눔마켓(아나바다)



여름성경학교 기다림 활동
반짝반짝 찬양파티, 얼음송공놀이, 사랑눈꽃 복음팔방수, 사랑가득 교회



청년선생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파송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출12:51)	말씀송 배우기, 5월 생일파티
	18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출19:5-6)	대근육활동(동작 따라하기)
	2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레20:26)	반별 말씀 암송
6	1	갈렐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민14:8)	말씀송 배우기, 6월 생일파티
	8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라합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수6:16)	요리활동(맛있는 간식만들기)
	15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수24:16)	성경학교 초대친구 그리기
	22	드보라와 함께 싸웠어요(삿5:2)	초대친구에게 줄 선물만들기
	29	기도온과 삼백 용사가 승리하게 하셨어요(삿7:9)	반별 말씀 암송
7	6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행1:8)	JUMP!JUMP! 성경학교 주제 꾸미기

/ 정윤정 부장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요



성경말씀 환경꾸미기!



JUMP!JUMP! 성경학교 주제 꾸미기



맛있는 간식 요리활동~



성경학교 초대친구 선물 만들기



성경학교 초대친구 그리기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12:51)	5월 생일파티
	18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출19:6)	영화상영
	2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레20:26)	말씀암송잔치
6	1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민14:8)	6월 생일파티
	8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라합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수6:16)	
	15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수24:16)	교사 월례회
	22	특별한 미션(마15:16)	봉업1단계(태신자 작정), 교사 월례회
	29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행1:8)	봉업2단계(선물꾸러미 준비하기), 말씀암송잔치
7	6	사랑의 눈꽃 복음팔빙수(요3:16)	친구 초청 봉분데이
	13	그리스도인, Jump! Jump!(행11:26b)	여름성경학교(7/12,13)

/ 민지수 전도사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해요



여름성경학교 센터학습



신나는 물놀이



신나는 물놀이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출12:51)	5월 생일파티
	18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출19:5-6)	반별 말씀 활동 (공과)
	2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레20:26)	반별 말씀 활동 (공과)
6	1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민14:8)	6월 생일파티
	8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라합(수6:16)	환경주일 기념 특별 2부활동 (교회 주변 미화)
	15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수24:16)	반별 말씀 활동 (공과)
	22	승리를 주신 하나님: 드보라와 함께 싸운 사람들(삿5:2)	반별 말씀 활동 (공과)
	29	승리하시는 하나님: 기드온과 300용사(삿7:9)	상반기 달란트잔치
7	6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삼상7:12)	7월 생일파티

/ 성창원 교사



5월 생일잔치



6월 생일잔치



7월 생일잔치



상반기 달란트잔치



환경주일 기념 교회주변 미화활동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유월절, 그날 밤 무슨 일이?(출12:51)	부모님께 카네이션 편지쓰기 활동
	18	<인터뷰>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다(출19:5-6)	공과 활동
	25	하나님 백성의 티피오!(TPO)(레20:26)	봄나들이 사진 콘테스트 시상
6	1	<현강탐험> 정탐꾼들을 만나다(민14:8)	모범반 선정 및 시상
	8	GPL방송국 "여리고 성 점령 다류"(수6:16)	공과 활동
	15	#여호수아의고별스타그램 #세겜약속(수24:16)	공과 활동
	22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 이야기(삿5:2)	공과 활동
	22	기드온의 300용사 야간 기습 작전(삿7:9)	기독교 가치관 교육팀 교육(주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자녀)
7	6	하나님의 도우심(삼상7:12)	학부모 초청예배

/ 김태정 부감



봄나들이 사진 콘테스트 활동



즐거운 예배시간



부모님께 카네이션 편지 쓰기 활동



재미있는 공과 공부 시간



기독교 가치관 교육팀 교육(강사:박미경 권사)



진지하게 공과 공부하는 친구들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상반기 AWANA "훈계와 법"(잠1:8)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18	상반기 AWANA "너희 발을 씻겼으니"(요13:14)	AWANA 올림픽(5/17 중일) 인선 남동체육관 금메달, 페어플레이상 획득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25	상반기 AWANA "충성하고 있나요?"(고전4: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6	1	상반기 AWANA 종강 미니올림픽	어와나 깃발입장/기도/단체사진/준비 운동 AWANA 미니 올림픽 팀별 간식나눔, 상반기 시상식(핀, MVP, 교사)
	8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느헤미야의 기도"(느1:3~4)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 인원 모집
	15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왕상1:46)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 대비 훈련
	22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연동 시네마 : 오늘부터 히어로(팝콘) 상반기 AWANA 결산 회의 및 부서 환경정리
	29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박성우 집사님과 함께하는 단체 레크리에이션, 여름 어린이부 6주 출석도장 이벤트 시작
7	6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내가 왕이 될 상인가 2"(왕상1:46)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 윤종훈 부장



어와나 올림픽 참가 금메달 획득!!!



상반기 어와나 종강 미니올림픽



어와나 미니올림픽 단체 게임



어와나 미니올림픽 농구 경기



어린이부 - 영화 관람



여름 어린이부 - 박성우 집사님과 함께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유월절의 사랑(출12:12-14)	5월 생일축하, 반별 모임 및 공과 활동
	18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라고 하시는 스승 (출20:1-17)	스승의 주일 행사, 반별 모임 및 공과 활동
	25	내 삶의 기준은 조희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레20:22-26)	5/31 춘천 아웃팅 광고 -춘천 닭갈비와 레일바이크 6/3 풋살 활동안내
6	1	기억하라(민13:25-33, 14:1-10)	6월 생일축하, 반별모임 및 인도네시아 선교 바자회 음식 나눔
	8	하나님의 약속(확률 100%) (수6:1-27)	반별모임 및 공과 활동, 세례입교 희망자 모집
	15	선택하고 따르라(수24:1-28)	반별모임 및 공과 활동, 여름수련회를 위한 찬양팀 연습 안내
	22	승리의 비결(삿5:1-9)	여름수련회 일정 광고, 반별모임 및 공과 활동
	29	시험 기간을 이겨낸 300명(삿7:2-8)	여름수련회 일정 및 주제 안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찬양대 정재엽 선생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파송
7	6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삼상7:3-12)	연말 연극공연 준비 모임 여름수련회 광고

/ 박성운 교사



스승의 주일 맞이 전도사님께 감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대



춘천 아웃팅



춘천 아웃팅 단체사진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5	11	열경 vs 순종(출3:1~15)	5월 생일축하
	18	이단과 교회(벧후2:1~3)	청바지 예배 2 : 이단의 포교방법과 대처방법 학생회 스승의날 감사
	25	함께 자라가는 우리(엡4:15~16)	야외예배 (난지한강공원), 24일(토) 교사월례회
6	1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민13:25~14:10)	6월 생일축하
	8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엡5:8~9)	3일(화) 풋살모임 - 중량물재생센터 환경주일 업사이클링(폐트병뚜껑 재활용_키링, 치약짜개 등 만들기)
	15	너는 누구 편이야?(수24:1~18)	디지털 시대의 절제와 윤리(음란물, 게임중독, 음주흡연)
	22	승리를 주신 하나님: 드보라와 함께 싸운 사람들 (삿 5:2)	21(토) 교사월례회, 최현준 찬양 간사 사임
	29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점(삿7:1~8)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축복 박찬하 찬양 간사 환영
7	6	마음의 대청소(삼상7:3~12)	7월 생일자 축하 미디어 중독 강의 (김유진 선생님)

/ 이승원 부감



이단의 포교방법과 대처



야외예배



환경주일 업사이클링 활동



미디어 중독 강의



청바지예배(토론예배)

연동교회 어와나, 서울·경기지역 어와나 올림픽 최초 우승!



매년 5월이면 한국 어와나 본부에서는 각 지역별 어와나 올림픽을 개최한다. 그중 연동교회는 5월 17일(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경기 지역 어와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동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11명의 어와나 선수단과 교사들이 두 번째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120여 교회가 모여 어와나 게임을 통해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 화합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다. 연동교회는 T&T(고학년) 남녀혼성팀으로 출전하였고, 오전과 오후로 진행된 총 10개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받았다. 연동교회 어와나 선수단은 올림픽 개최 전 한 달 동안 매주 모여 준비하고 연습하여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한 교회에게 수여되는 페어플레이상도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약 5,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교사, 봉사자들이 모여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뽐내고 경쟁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어와나 올림픽에서, 출전한 지 2년 만에 금메달과 페어플레이상이라는 감명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성취감을 통해 연동교회 어와나 선수단이 믿음 안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 / 장판규 전도사(어린이부)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



제32회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가 7월 5일(토)에 정릉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는 이병희 장로(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이문희 집사(후원회장)의 기도,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담임)의 ‘복 있는 어린이’(시편 119:1)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는 5월 10일(토) 자양교회에서 열렸던 제64회 서울노회 어린이교육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 수상자가 참가하게 되는데, 연동교회에서는 14명이 참가하여 전원 수상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14명 중 금상 수상자인 박호준(유년부) 어린이는 8월 12일(화) 천안중앙교회(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어린이대회에 서울시(강북협의회)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의 참가자 명단과 수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부서(학년)	이름
성경고사	유년부(2학년)	박호준(금)
	초등부(4학년)	김하슬(동)
찬양율동	유년부(1·2학년)	김은우, 김유하, 이지현, 장하영(은)
	초등부(3·4학년)	이다희, 기하운, 이지윤, 김소연(동)
	소년부(5·6학년)	김유진, 정하울, 박소은, 하도희(동)

창단 21주년을 맞는 연동주니어앙상블

연동 주니어앙상블은 2003년 12월 성탄예배를 앞두고 예배 전에 찬송가 멜로디를 잠시 연주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창단 이후 올해로 21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편곡과 함께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고, 매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며 봉헌송과 봉사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다양한 연습과 어려운 곡들에 지칠 법도 했지만,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주었고, 그 모습에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 20년간 연동 주니어 앙상블은 '인내'와 '감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연주해 왔습니다. 빠른 자속에 익숙한 시대에, 아이들이 몇 시간씩 앉아 연습하는 경험은 매우 귀한 교육이 됩니다. 그 인내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때, 이를 지켜보는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연동 주니어 앙상블은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 둘째는 봉사 연주를 통해 선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앙상블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췄었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 덕분에 앙상블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함을 배우고 나누는 앙상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김진환 집사(연동주니어앙상블 지휘자)

< OB단원 인터뷰 >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연동 주니어 앙상블'에 입단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 총 5년간 활동했습니다. 특히 '여름캠프'가 기억에 남는데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연습을 정말 많이 했고, 낮에는 수영, 밤에 단원들·지휘자 선생님·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장애인분들이 계신 '천사의 집'에 방문해서 연주하고, 함께 물풍선 놀이를 하며 즐겁게 봉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연동교회 토요악기교실' 레슨 선생님이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청년부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토요악기교실에서 조금씩 실력이 높아가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토요악기교실' 바이올린반 학생들이 모두 주니어 앙상블 단원이 되어, 함께 연주하면서 실력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결 성도(청년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플루트로 주니어 앙상블 활동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까지 약 6년 동안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했지만 합주를 통해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악기에 대한 이해와 음악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여름과 겨울마다 진행된 캠프입니다. OB 단원 청년부 선배들이 오셔서 개인 레슨을 해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좋은 기억 덕분에 지금은 '연동교회 토요악기교실'에서 플루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차 실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레슨 선생님이로서 주일학교 후배들이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니어 앙상블 활동을 통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까지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황보예원 성도(청년부)

	대상	시간	장소
주니어앙상블	초등 3학년~고등 3학년	매주일 13:30-15:00	부용찬양대실(312호)

청소년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

날짜	부서	장소	주제
7월 12일(토)~13일(주일)	영아부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유아부	가나의집 2층 유아부실	
	유치부	가나의집 2층 유치부실	
7월 25일(금)~27일(주일)	유년부	강화수양관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대작전
	초등부		
8월 1일(금)~3일(주일)	중등부	강화수양관	깨움 업(UP)
	고등부		MISSION:FAITH
8월 7일(목)~9일(토)	주니어 앙상블	대부도 그랑비치 펜션	-

7, 8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7	6월 30일(월) ~ 7월 10일(목)	인도네시아 단기선교(장년부 : 7월 6일 귀국)
	1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6일(주일)	성례주일, 세례식, 성찬식
	12일(토)	러브릿지-ON(溫)-1남선교회
	12일(토)-13일(주일)	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5일(금) -27일(주일)	유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강화수양관)
	26일(토)	러브릿지-ON(溫)
8	1일(금)-3일(주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강화수양관)
	7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목)-9일(토)	주니어앙상블 여름수련회(대부도 그랑비치펜션)
	9일(토)	러브릿지-ON(溫)-2여전대회
	10일(주일)	해방기념주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오후 3시, 본당)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29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30일(토)	예비일새벽기도회 : 자녀축복기도

“전승룡 집사와 함께하면 모두 다 전승”



사이클과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잘 타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저렴한 자전거가 고장 나 수리하러 갔다가, 가게에서 고급 자전거를 반값 이상 할인하길래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됐네요. 그걸 계기로 사이클 동호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취미로 자리 잡았네요.

달리기는 멋진 런닝화를 저렴하게 구매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신어보고 싶어서 하루 10분씩 뛰기 시작했고,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니 하프마라톤, 결국엔 풀코스 마라톤도 세 번 완주했습니다.

수영도 좋아했지만, 중이염으로 잠시 쉬고 완치되면 철인 3종에도 도전해보려구요.



운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삶의 변화나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비만 체중이었고,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며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사이클과 마라톤을 하면서 13kg 정도 감량했고, 정상 체중이 되니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풀코스 마라톤을 많이 뛴진 않았지만, 뒀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죠.

특히 힘들 땐 예수님이 다리를 붙잡고 “그만해도 좋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라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디뎠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훈련한 게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었고, 35km 지점을 넘기며 얻은 성취감 덕분에, 다른 어려움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현재는 혈관조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외부 병원에서 산후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40대 산모를
시술로 살려낸 일이었어요. 수혈을 50팩 이상 받았던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시술이 성공했고
이들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죠.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을 때,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리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출산한 산모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순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입사 초기에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3년간이었는데,
당시 아이들이 3살, 1살로 아주 어렸고, 밤샘 근무 후에도 낮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한
상태로 다시 출근해야 했어요. 특히 오후 늦게 겨우 잠들면 아내(양진실 집사)와
아이들이 귀가하면서 잠도 깨고, 다시 출근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아내의 배려와 기도로
큰 힘을 얻었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3교대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ㅎㅎㅎ



교회학교 교사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초등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같이 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모습이 매우 감사하고, 기억에 남아요. 또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초등부에 들어올 때가 되니까 신기하고 감사해요.



앞으로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5년 이내에, 철인3종 경기에 한 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2, 중3인데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전승룡 집사(쌍성연동 07구역)와 함께한 전승! "왓두유뽀리빙"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특수교사 여동훈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제비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 이름을 종이에 적은 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갯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종이를 한 장 뽑았습니다. 그 종이에선 제가 가장 원했던 대학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내 저는 조금 더 큰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에 다시 종이를 넣고 제비를 뽑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성적에 맞춰 넣 어둔 관심이 없던 대학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 확신과 웃음은 이내 사라졌고 알 수 없는 불안에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주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 나올 때까지 제비뽑기를 반복 한 뒤 독서실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고3 때까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고등학교 기숙사에 경계선 지능 장애가 의심되는 후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또래 친구들이 그 후배를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시험 기간에는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직업 관련 책을 보다가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후배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이 저에게는 즐거웠고 보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와 이 직업이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교 원서를 넣는 시기에 ‘중등특수교육과’에 원서를 넣었고,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임용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해 드리면, 임용시험에 바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도전 중입니다.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서 특수학교에서 경력을 쌓으며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사실 모든 시험이 그렇지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계속 도전하지만, 불합격할 경우에는 심한 자책, 절망, 좌절, 슬픔이 너무 쉽고 빠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주위 모든 관심이 부담되며 그저 혼자만 있고 싶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위의 합격 소식에 축하보다 먼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고보서 말씀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 후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꼭 잠언 말씀도 읽고 기도하며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고민 끝에 ‘훌륭한 교사’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교사’이지 ‘정교사’가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정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교사’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정교사’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교사가 되게 해주세요’에서 ‘학생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 2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기에 슬프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 표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청각장애 학교에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임용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후배분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보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길을 가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특수교육과 또는 임용시험, 수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10-2622-2284로 연락해 주시면 아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요청 가능하니, 활동하는 sns, 홈페이지 등 연락처 공유해 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청년부 독서모임을 통해서 연동교회에 정착했어요”



이충호 성도(HI청년부)

2024년 6월 16일에 등록하고 9월 29일 새가족 교육을 마친 이충호 청년(30세)을 교인들께 소개합니다. 당시 청년부 독서모임은 2024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10주 동안 <기독교강요>로 김윤기 목사가 주관했습니다.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온 가족이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잠시 신앙에 대한 고민에 답을 찾지 못해 방향한 적도 있었지만, 떠날 때마다 붙잡아 주신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연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Q.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포항에서 대학을 나와 일을 하다가 이직의 기회가 생겨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연고가 없어 교회를 찾아 헤매다 연동교회 청년부를 다니는 윤경희 언니의 추천으로 청년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청년부에 출석하여 설교를 들었고, 청년부 사람들의 따뜻한 고민하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연동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Q. 연동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직해서 올라왔던 회사는 주말 근무가 잦았고,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조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신자 과정도 더디게 마치고, 배정받은 셀에도 많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목사님이 진행하셨던 평일 저녁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신앙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들과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올해는 청년부 셀지원팀으로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고 삶을 나누며 더 끈끈하게 적응 중입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연동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날부터 모든 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연동교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일정 중에 신자 한 명 한 명의 고민에도 귀 기울여 주신 김윤기 목사, 박주안 목사, 조창우 전도사, 그리고 위임목사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족한 저와 함께해주는 우리 셀지원팀! 덕분에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지성적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으나,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질문 하나에 흔들리고, 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실망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신앙을 가슴으로, 또 머리로도 이해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저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시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가며, 나태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과 잘 타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함께했던 독서 모임과 저희 셀지원팀에서 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 깊게 나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필요한 순간을 채워 주시고,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힘든 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진행: 진상협 기자, 사진: 김세현 집사



"나의 통증은 곧 나의 진실"

장벽에 맞서 고통을 시로 승화시킨 박정숙 2 집사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교인들은 동정과 시혜를 깔고 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안 받고 '저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정숙2 집사(명륜연건구역)와의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린시절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얻었고, 세상과의 소통에 깊은 벽을 느끼며 자랐다. 외롭고 어두운 유년과 검정고시로 마친 초,중,고,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20여 년의 봉제노동자 생활, 현재는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일하며 세상의 장벽에 맞서 글쓰기로 자신을 풀어내고 있다. 하늘과 나무, 사람들의 숨결 속에서 느낀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그녀에게 세상과 자신을 잇는 가장 솔직한 통로는 시다. 그녀는 "시는 나의 일기, 나의 속마음, 나의 진심, 나의 진실 같은 거예요. 시는 바로 나예요"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써 내려간 영혼의 시들을 모아 7월 15일 생애 첫 시집, <통증일기>를 펴냈다.

때로 장애는 삶을 놓고 싶게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다시 붙들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은 1983년 연동교회 야학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그 3월이 잊히지 않아요. 내 삶이 다른 삶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녀는 연동에서 신앙을 시작했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삶의 지혜와 연대를 배웠다. "그러니 연동교회를 빼놓고 내 삶을 말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하는 통증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다. "햇살이 너무 찬란해도 통증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다 통증이죠." 확장되고 재해석된 통증은 타인과의 깊은 공감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잘 죽는 것"이다. 평화롭게, 누구에게도 해되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암 수술 이후에도 잃지 않은 평온함과 깊어진 눈빛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겁낼 일은 없어요." 담대하게 고백하게 한다.

배제와 차별의 높은 장벽과 평생의 장애를 딛고 스스로를 "생존자"라 칭하는 연동의 오랜 가족, "박정숙2 집사님의 시집 <통증일기> 탄생에 축하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은퇴권사회 수련회



5월 22일(목) 은퇴권사회(회장 박은옥 공로권사) 회원 52명은 파주 벽초지수목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회원들은 출발 전 드보라의 방에 모여 찬송가 383장 찬양 후 벤전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박주안 목사의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김주용 위임목사, 박주안 목사를 모시고 파주 벽초지수목원으로 향했다. 입장하기 전 동충하초 삼계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수목원에 들어가 분수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며 천천히 꽃구경도 하고 6가지 테마 공간(설렘, 신화, 모험, 자유, 사색, 감동)에 동양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목원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만끽했다. 돌아오는 길에 데이지꽃이 만발한 필무드카페에서 맛있는 빵과 커피, 차를 마시며 담소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하루를 즐겁고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수련회였다. "함께하신 권사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하며, 위험한 곳에선 어머니나 누님을 대하듯 손잡아 주시고, 차와 커피, 빵을 직접 들고 날라주신 김주용 위임목사님, 박주안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에도 감사합니다." / 장연화 공로권사(은퇴권사회 총무)

제1남선교회 신앙수련회



5월 16일(금) 제1남선교회(회장 김성영 장로) 회원 34명은 드보라의 방에서 이만규 지도목사의 '바른관점, 바른판단, 바른교제'(빌레온 1:15~16)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사말씀과 함께 배웅을 받으며 가평 축령산에 있는 잣향기 푸른숲으로 신앙수련회를 다녀왔다. 비가 오는 촉촉한 날씨임에도 가벼운 체조 후 1.2코스의 산행으로 잣향기가 물씬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친교와 산행을 안전하게 마쳤다. / 김성영 장로(1남선교회 회장)

부활의 동산 일부 포장공사



부활의 동산 진입로 포장 공사가 5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공사는 풍양토건에서 맡았으며, 도로 파손으로 인한 기도처 주위 축대 붕괴와 오래된 도로 밑 배수관 파손 발견으로 추가 안전조치로 축대 기도처 축대 개축 및 홍관 매설작업 및 기도처 도로 배수 작업을 했다./ 김중은 기자

트리니티워십 밴드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5월 25일(주일) 오후예배는 트리니티워십 밴드가 주관하는 찬양예배로 드렸다.

1.아주 먼 옛날 2.기뻐하며 왕께 3.감사함으로 4.새 힘 얻으리 5.그럼에도 불구하고 6.나는 믿네 7.주님의 선하심+내 삶 드리리 찬양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시편 42:11)' 제목으로 김주용 위임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결단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와 주제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이지원 기자



임산부 축복기도



5월 25일(주일) 영아부(부장 이현승 피택권사)에서는 영아부 예배 후 임산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권하영·하병진 집사의 두 번째 선물 짱아(태명) 그리고 구현영 사모·오한빛 목사의 오순이, 도순이(태명)와 김지영 사모·김환 목사의 한방이, 찰떡이(태명)는 각 가정의 첫 번째 선물로 쌍둥이다. 초음파 사진으로 만나는 짱아와 오순이, 도순이, 한방이, 찰떡이를 보면서 환영 인사를 한 뒤 각 가정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 뒤, 영아부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축복송(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을 불러주었다. 이후 준비해온 태아를 위한 편지를 읽고 영아부에서 준비한 선물증경, 표경림 영아부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연동신협 조합원 교육



5월 27일(화) 화담숲(경기도 광주 군지암)에서 신협 조합원 교육이 있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화담숲에 도착한 조합원 34명은 점심 식사를 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화담숲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이후 카페에 모여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 정영희 권사(연동신협 상임이사)

제2여전도회, 태백 연동교회에서 수련회



5월 29일(목) 제2여전도회(회장 문춘애 권사)는 계대운 목사의 기도 후 23명 회원들과 함께 '태백 연동교회' 방문 예배 및 수련회를 다녀왔다. 2여전도회에서 지원하는 태백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대웅 목사님과 사모님이 준비해주신 '웰컴 티'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서 먼 길을 달려온 회원들의 피곤함을 잊게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만향재 야생화정원'도 탐방했는데, 근각지 산책길을 걸으며 피톤치드 향기를 흠뻑 맡은,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하고 건강한 경험이었다. 서울 올라오는 길에 안대웅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태백산국립공원 하늘 전망대'에도 들러 시원하게 펼쳐진 태백산의 절경들을 정상에서 만끽하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그 자체에 모두들 감탄, 감탄했다. 이번 2여전도회 수련회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 /최경희 권사(2여전도회 교육부장)

인도네시아 선교바자회



6월 1일(주일) 청년부는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청년부 단기선교팀과 임원단이 중심이 되었으며 음식 준비는 장년부도 함께 봉사해주셨다. 모두 분홍색의 화사한 선교 단체티를 입고 교인들을 반겼다. 오병이어의 집에서는 여름에 제격인 냉모밀부터 돈까스, 생선까스, 비빔밥 등의 음식들을 판매했다. 마당에서는 각종 간식들과 꿀 레몬차 등 음료를 판매했으며 수세미, 머리핀과 같은 소품들도 함께 판매했다. 바

자회 물품 구입을 위한 티켓부스도 직접 제작해 운영했다. 각종 교회 부서 대상으로는 선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이들의 참여 덕분에 선교 활동을 위한 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후 원활한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 남다은기자

‘연못골’ 편집부 상반기 수련회



6월 6일(금) 출판선교팀(팀장 박현미 권사) 연못골 편집부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기자와 함께 상반기 수련회를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부 순서로 김성영 장로(문화선교부장)의 기도와 계대윤 목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 2부에는 이경아 기자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후 순서로 보물 찾기와 티타임을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진상협 기자

세계선교위원회 정기 회의



6월 7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청평에서 정기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동북아(조다니엘 선교사) 그리고 해외 선교사와 가족에 대한 의료 후원 계약을 맺은 연세의료원과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였다. 이어 청장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금번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단기선교는 금

년 초 최종 완공된 사랑의 공동체 건물에 교회를 대표하여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과 장년 교인들이 참여하는 의미에 더해 선교사역에 청장년부가 세대를 넘어 힘을 합쳐 함께 진행한다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 총회로부터의 후원 청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위한 현지에서의 찬송가 보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 1,500권의 제작후원을 진행하였던 바 있었다. 이번 청원은 재고 소진에 따른 추가 지원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예배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현지의 요청에 부응하여 추가 1,500부의 제작 지원이 의결되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박소현 선교사는 ‘소유와 존재가 예수님 안에’라는 이름의 현지 학교를 통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양육하고 계시며 올 6월에 첫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교사님 한국 방문시에 의견을 주셨듯이 첫 졸업 기념으로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현지의 요청에 졸업가운 및 앨범을 지원하기로 회의시 의결되었다. 졸업가운은 첫 졸업생 이후로도 매년 졸업식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 윤중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환경선교 기념예배



6월 8일(주일) 오후예배는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매년 6월 첫째주일)을 맞아 환경선교 기념예배로 드렸다. 사회봉사부 부장 박재천 장로의 인도로 최계숙 권사(사회봉사부 차장)의 대표기도, 김인교 피택안수집사(사회봉사팀 총무)의 성경 봉독, 실버아카데미 열한제자의 찬양과 목경수 집사의 해금 연주가 어우러진 '순례자의 노래' 특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실 천신학대학원 총장인 노영상 목사는 '위기의 지구'(요엘 2:21~24)라는 제목으로, 현재 지구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위기(기후 변화, 토양 오염, 수자원 고갈 등)를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 경고하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의 회개와 절제, 그리고 마음을 짓는 영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설교를 전해주었다. 또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며,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삶을 통해 구원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 고현수 기자

교회직원 수련회



6월 10일(화) 교회직원 12명은 강화수양관 주양환 안수집사와 임인수 안수집사의 수고 덕분에 승합차량 2대로 직원 수련회를 다녀왔다. 먼저 산정호수에 들러 산책길을 걸으며 호수 주변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점심은 이동갈비로 출출했던 배를 채웠다. 오후 일정은 한탄강으로 이동해 하늘다리를 거쳐 Y자형 출렁다리까지 걸어보았다. 오전에는 어둑한 하늘이 비가 내릴 듯했지만, 햇살이 없어 산책하기 좋았고, 오후엔 햇볕이 있었지만 강가라 바람도 불고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 김중은 기자

제3남선교회 신앙수련회



6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제3남선교회(회장 유 기정 피택안수집사)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에코프라미스 수련원에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진우 목사를 비롯해 총 30명의 참석자는 첫날 저녁 공동식사를 통해 친목을 나눈 후 찬양과 함께 수련회의 문을 열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리빌딩(Rebuilding)’으로, 느헤미야 3장 28~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복과 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

가 되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양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준비된 게임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졌다.

둘째 날 아침에는 QT를 통한 말씀 묵상과 각자의 신앙과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나눔을 통해 각자 자신을 비춰보며 회복과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찬양과 기도, 즐거운 활동과 깊은 나눔이 어우러진 이번 수련회는 참석자들에게 ‘리빌딩’이라는 주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 동기를 부여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유기정 피택안수집사(3남선교회 회장)

건강한 교사, 건강한 교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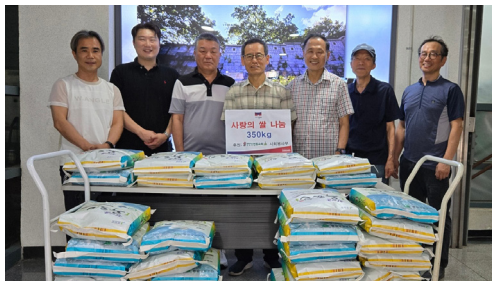


6월 14일(토) 청소년 주일학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통한 성교육 세미나’를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진행했다. 강의는 성경 속 성에 대한 가르침, 교회 내 실제 사례, 교사와 공동체의 예방 실천 지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교회가 성경 위에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기독교 성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성경 속에는 성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는 예방을 위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며, 발생된 문제상황 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키고 예방과 대처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도들도 성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바로 보기, 회복하기, 바로 서기’를 강조하며 단지 성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회복 운동이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침묵이 아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사와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 김유진 집사(용인구역)

사랑의 쌀 나누기



▶지원처(쌀 총 2,056kg): 종로5,6가동 주민센터(350kg), 등대교회(쪽방선교:220kg), 다-품(540kg), 반석교회(250kg), 베데스다선교회(210kg), 따뜻한 밥상(346kg), 교우(140kg)

6월 15일(주일)과 22일(주일) 교회 마당에서 사회봉사부(부장 박재천 장로) 주관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두 주 동안 쌀 106kg, 봉헌금 5,165,000원이 모여 봉헌금으로 1,950kg의 쌀을 구입했다. 7월 4일(금) 7군데 지원처에 이건희 목사, 박재천 장로, 김성영 장로, 배영근 집사, 한정호 집사, 김태곤 피택안수집사 등 6명이 사랑의 쌀 배달을 다녀왔다. / 박현미 편집장

구역장 위로회



6월 20일(금) 구역지도자 위로회가 오병이어의 집에서 열렸다. 친교부(부장 김이순 장로)와 목양위원회 위원들이 준비한 수육과 찜으로 배불리 먹고 친교를 나눴다. 오후에는 드보라의 방에 모여 한학기 동안 수고한 구역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이건희 목사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한바탕 웃음보를 터트리며 즐겁게 마무리했다. 교구장 목사님들의 리즈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던 건 비밀이다. / 김종은 기자

제1남선교회 “혈관의 중요성” 특강



7월 6일(주일) 오전 9시20분에 제1남선교회(회장 김성영 장로) 주관으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노환규 피택안수집사(홍부외과심장질환 전문의)의 ‘혈관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산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무기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 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동맥과 정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 질의 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주었으며, 베들레헴예배실에 가득하게 모인 참석자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 안창익 안수집사(1남선교회 총무)

다 같이 “씹~씹~” 돌자! 동네 한바퀴~



6월 20~21일(금,토) 강화수양관에서 씹씹가족캠ป์를 은혜와 즐거움으로 잘 마쳤다. 계대운 목사의 모두 함께 진행 기획으로 임경선네, 박성우3네, 전영선네, 정영석네, 성창원네, 이정관네, 한영호네, 이은영네 가정과 계대운 목사, 최혜리, 박성미, 김종은, 박동진 등 어른 아이 30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들과 함께하여 더 귀한 시간이었다.

찬양예배를 시작으로 다함께 게임과 마니또, 불멍토크, 물총놀이와 바비큐파티로 마무리하였다, 씹씹가족캠ป์를 통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동의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잘 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연동교회의 미래를 보았다. / 박동진 기자



5교구, 청와대 나들이



6월 27일(금) 5교구 구역원 22명은 교구장인 계대운 목사와 함께 청와대를 다녀왔다. 춘추문으로 입장해 계대운 목사의 세심한 인도로 많은 인파 속에서도 청와대 공간들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즐겁게 다니며 밝은 웃음이 묻은 따뜻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새기고 돌아왔다. /임경선 집사(5교구 쌍쌍9구역장)

소그룹 '소리터', 교회와 청계천에서 버스킹 공연



소그룹 '소리터'는 6월 29일(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 교회마당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예배 후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리터 회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뜻을 함께하는 객원 싱어, 연주자들과 함께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토)에는 청계천 삼일교에서 외부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청계천 일대 시민들이 점차 모여들어 함께한 이번 버스킹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귀중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통해 찬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리터'는 노래에 자신 없던 회원들이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1:1 코칭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점점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공동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한정호 집사(소리터 선생님)

2025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자



6월 29일(주일) 새가족 만남의 시간과 상반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연동의 새가족 양육체계가 바뀐 이후 올해 처음으로 맞는 수료식이기에 준비하는 새가족부원들에게는 그 어떤 수료식보다 의미가 남달랐다. 베들레헴예배실이 채워져 가면서 집체교육을 함께하신 새가족분들의 자연스러운 나눔과 서로에게 한껏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와 기쁨의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연동처럼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싶다는 집사님. 양육 이후 데바레카의 매일 성경통독으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새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잠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된다. 앞으로 나눔을 가지게 될 공동체 분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상반기 수료예배를 은혜 속에서 감사히 마쳤다. 연동으로 인도하신 귀한 발걸음이,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과 따뜻한 관심으로 연동교회에 깊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김세현 집사(새가족부 관리팀총무)

교구	구역	새신자
1	마포용산	최지현
	쌍문	신임희
	명륜연건	박선희, 김정열, 김진아, 송정아, 이재건, 장미래
2	성북1	조혜정
	잠원/반포	김정원
	백주년	김계숙
	행당/금호	이군식, 김귀자, 김소형
3	광진중곡	양리평
	수유	이용부
	서초/방배	마정화
	한신1	김현숙
4	동작/관악	이혁제
	계기청량리회기	조은경
	길음	김현정, 장진행
5	연지	김진숙
	한신2	권은영, 홍성기
	쌍성04	정지훈, 김보림
	쌍성06	최정옥

제1여, 제1남 선교회, '러브릿지온' 사역 참여



제1여전도회 6월 14일(토) 12명 회원이 오병이어의 집에 모여 이견희 목사의 기도와 박대선 복지사, 박재천 장로(사회봉사부장)의 안내로 12가지 생필품을 쇼핑백에 담아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30가정에 전달.

“쪽방촌 분들의 생활을 보며 마음이 찼했습니다. 미력이나마 1여전도회원들과 함께 러브릿지온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박혜영 권사)



제1남선교회 7월 12일(토)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오후 12시 30분 오병이어의 집에 모여 창신동 쪽방촌 30가구에 전달할 생필품을 준비해 5개 조로 나누어 각 가정에 전달. 이견희 목사, 박재천 장로(사회봉사부장)와 1남선교회원 10명, 쌍성구역원 6명, 2여전도회에서 참관 온 6명 포함, 총 24명 참가.

“저는 올해 두 번째 참여인데,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그들의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성영 장로)

/ 박현미 편집장

2025년 하반기 예비일새벽기도회 특송 안내

7월	5일	청소년 주일학교 해피팀(영아,유아,유치부)
	12일	
	19일	청소년 주일학교 드림팀(유년, 초등부)
	26일	청소년 주일학교 비전팀(중등, 고등부)
8월	2일	2남선교회
	9일	데바레카 성경통독
	16일	3남선교회
	23일	
	30일	청소년주일학교 전체
9월	6일	하기폰(오카리나) 중주팀
	13일	2여전도회
	20일	1남선교회
	27일	연동탁구교실

10월	4일	추석연휴
	11일	
	18일	
	25일	HI - 청년공동체
11월	1일	
	8일	새가족부
	15일	토브(팬플룻)
	22일	영성훈련부
	29일	국내선교부 직장인선교팀
12월	6일	2여전도회 코바늘교실
	13일	하기폰(오카리나)
	20일	
	27일	

* 특송을 하기 원하는 부서(또는 개인)는 교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6월 22일(주일)부터 10월 25일(토)까지 15주 동안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오후예배 드리지 않는 주일에는 오후 1시30분, 오후예배를 드릴 때는 오후예배 후에 장로(8명), 안수집사(10명), 권사(18명) 피택자 총 36명을 대상으로 피택자 교육이 진행된다. 매주 강의와 필독도서 과제발표, 성경일독, 공예배 기도문, 개인 신앙고백문을 제출하고, 전도, 토요현장학습, 금식영성수련회, 일대일 제자훈련 이수, YBS 성경공부 1과목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10월 26일(주일) 헌신예배를 드리고, 종합시험을 치른 후 12월 14일(주일) 임직예배를 드리게 된다. / 이지원 기자

날짜	과목	담당	비고
6/22	오리엔테이션, 교육안내	계대운 목사	기도, 예배인도
6/29	구약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	이진우 목사	구약신학
7/6	신약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건희 목사	신약신학
7/13	교회의 역사, 상황과 상수	김주용 목사	역사신학 영상강의
7/20	사도신경, 장로교신조, 요리문답	김 환 목사	교리신학
7/27	선교적 교회	계대운 목사	선교신학
8/3	기독교교육 이해하기	오한빛 목사	기독교교육
8/10	예배와 예배자	이현주 목사	예배신학
8/17	연동교회 당회 및 교회질서(교회연합활동-노회, 총회 등)	김대진 장로	교회행정
8/24	크리스천 리더십	안정도 교수	오픈강의
8/31	교회와 디아코니아	박주안 목사	복지사역(러브릿지온 참여)
9/6(토)	토요현장학습	계대운 목사	달미(십자가 체험)
9/14	종합시험	계대운 목사	
10/12	연동교회 역사	심포지움참여	역사세미나
10/24-25 (금)-(토)	직분자의 영성 (일일수련회)	김주용 목사	10/26 헌신예배
10,11월중	피택장로 단기선교 아웃리치	계대운 목사	선택

성례주일 세례식



7월 6일 성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었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안식년 기간으로 이성희 원로목사가 설교와 세례식을 집례했다.

세례: ① 김가호(남-중국어예배반) ② 김정원(여-잠원반포구역)
③ 이혁제(남-동작관악구역)

교회 첫출석 아기



오하민 아기(남, 2025년 2월 2일생)

오진웅 집사, 김다은 성도의 아들/ 길음구역

*진화신 집사의 외손자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무 소중한 하민이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민이가 사랑 많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새가족 소개



경문호 성도(4교구 장안구역)



김련숙 성도(2교구 과천안산구역)



김현정 성도(4교구 길음구역)



신임희 성도(1교구 쌍문구역)



양리평 성도(3교구 광진중곡구역)



여주미 성도(2교구 5,6가주얼리구역)



이금용 성도(4교구 동작관악구역)



이성례-황규연 성도(2교구 강서구역)



장진행 성도(4교구 길음구역)



조은경 성도(4교구 제기청량리회기구역)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5,6월 러브릿지“溫(ON)” - 필요에 닿는 손길, 이웃 결의 러브릿지온
 ▶ 5월 10일(토)과 31일(토) 그리고 6월 14일(토)과 21일(토)에 러브릿지온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매달 두 차례, 지역의 독거 어르신 80명과 다문화가정 5가구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하며, 이들의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되고 있다. 매번 달라지는 필요를 꼼꼼히 살피고, 알맞은 물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선 ‘함께 살아감’의 실천이다. 앞으로도 러브릿지온은 변함없이 결을 지키며, 지속적인 돌봄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것이다.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는 집사)

종로구청과 함께하는 텃밭교육 3차 - 난각 칼슘 영양제 만들기

▶ 6월 25일(수) 종로구청과 함께하는 텃밭교육 3차 - “난각 칼슘 영양제 만들기”: 제3차 도시 텃밭 꼬마 농부 활동이 진행되었다. 달걀껍질과 식초로 난각칼슘 영양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치유 농업 강사가 파견되어 이루어진 도시 꼬마 농부들의 텃밭 체험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유익했다.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나들이-볼링장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6월 나들이로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볼링장 체험을 다녀왔다. 처음 볼링을 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렘과 걱정이 있었지만 아이들 모두가 재미있게 활동을 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운동을 경험하며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으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 볼링을 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볼링장에 가득했던 소중한 하루였다.

신협 현황

(5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37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752,289	39,021,273	2,226,058	909,635	47,909,255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1,242,551	716,681	75,790	15,874,233	47,909,255

(6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4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777,184	38,986,945	2,297,872	900,275	47,962,276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0,390,329	2,160,423	94,794	15,316,730	47,962,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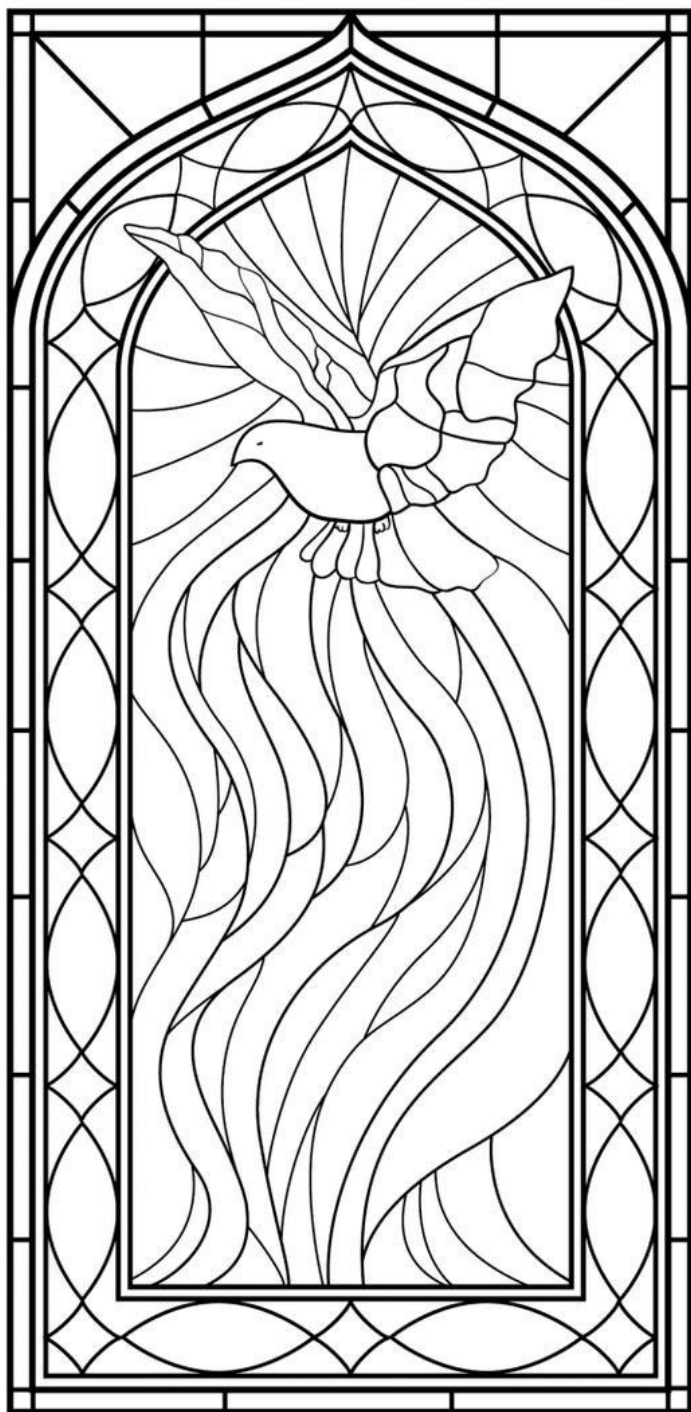
목양위원회

■결혼식

- 김성기(김학수2 안수집사, 신임분 집사 아들/동대문구역) 군과 이루네(정승은 님 딸) 양 - 6월 6일(금) 오후 5시 20분
루이비스웨딩 중구점 18층
- 이에일(이성은 목사, 장은옥 집사 딸/삼선구역) 양과 최정옥(최남식 님, 박덕필 님 아들) 군 - 6월 7일(토) 오후 3시 30분
아펠가모 궁덕 7층 라로브홀

■장례식

- 공미영 님(이순재 他장로 모친, 강은희 집사 시모/명륜연건구역) 별세, 5월 21일 안성 천주교 추모공원에 모심
- 설옥자 집사(김부호 집사 모친/낙산구역) 별세, 6월 7일 백합의뜰에 모심
- 이영희 성도(정금숙 집사 모친, 심종섭 집사 장모/서초방배구역) 6월 19일 별세, 세브란스병원에 시신기증
- 남궁원순 권사(김재희 집사 모친, 지용식 집사 장모/행당금호구역) 별세, 6월 24일 강릉 솔향에 모심
- 박미현 명예권사(김현정1집사 모친, 권혁부 성도 장모/충신구역) 별세, 7월 1일 연동동산에 모심
- 김연복 명예권사(이호진 장로, 이병예 집사 모친, 김경미 권사 시모, 이민경,이윤재,이선경 성도 조모/장안구역) 별세,
7월 3일 백합의 뜰에 모심
- 변오순 님(송정숙1 은퇴집사 모친, 이기재 은퇴집사 장모, 이동현 집사 외조모/연지구역) 별세, 7월 10일 강진읍 봉덕 선영에 모심
- 배옥면 명예권사(이성자 성도 모친/고양구역) 별세, 7월 18일 대전현충원에 모심



(이름:

연락처:

소속:

)

4-5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남상욱(효제)-4380



전민규(이화4구역)



오테이(동대문구역)5217



이영우(쌍쌍7구역)

*6-7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9월 14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천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7권 621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5년 7월 20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운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신입 남다은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세상은 폭염으로 당겨져 터질 듯 작열해도
주님이 그늘 되시고 생수 되시니 내 영혼 늘 평안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연동인



6-7월호(621호)